

4년제 졸업자 전문대 편입 길 열린다

교육부, 전문대학 제도 개선

국가 우수장학금 대상 포함

대학 교육·재정 자율성 강화

앞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전문대 학 편입학의 길이 열린다.

일반 대학교 재학생에게 제공됐던 국가 우수장학금이 전문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에게도 주어진다. 일반 대학교 재학생에게 제공됐던 국가 우수장학금이 전문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에게도 주어진다. 일반 대학교 재학생에게 제공됐던 국가 우수장학금이 전문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에게도 주어진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사학위 취득자가 간호학과를 비롯해 전문대 3학년에 정원의 편입학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취업에 유리한 전문대 간호학과 등에서 다시 공부하려는 4년제 대학 졸업생

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전문대는 일반대와 달리 학사학위 취득자의 편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문대에서 다시 공부하려는 대졸자는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유턴 입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전문대 유턴 입학자는 2015년 1379명, 2016년 1391명에 이어 올해 145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는 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4년제 대학에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 대상을 2019년부터는 전문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국가우수장학금 지원 현황을 보면 일반대 743억원, 고교 32억원이었으며, 전문대에는 한 톨도 지원되지 않았다.

산업계 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하던 ‘산학협력 중점교수’ 임용 기준도 완화해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개인 창업, 프리랜서 등 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각종 부작용이 드러난 전문대 NCS(국

가직무능력 표준) 교육과정은 일단 유지하되,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쪽으로 개선한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소양을 국가가 산업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이에 관한 세세한 분류 기준과 평가 방법을 교육과 직업훈련에 활용하도록 개발한 교육과정이 전문대에 적용돼왔다.

그러나 대학별 특성과 급변하는 기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일괄 도입됨에 따라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대학에 큰 부담만 안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NCS 교육과정을 이수해도 전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기업이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개선해 개발이 끝난 분야에만 NCS 과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NCS 과정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전

공별 필수 능력단위를 마련해 대학 간 교육과정 편차를 없애기로 했다. 기업들이 NCS 교육과정 이수자 채용을 늘리도록 해 직무중심 채용 확대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NCS를 토대로 현장경력과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을 서로 연계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를 구축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융합전공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를 도입해 학사제도를 유연화하고, 대학 간 자원공유를 통해 콘텐츠도 보강한다.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위·비학위 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주문식 교육과정을 비롯한 사회맞춤형 학교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사업 간 유사·중복을 최소화하도록 특수목적 사업도 개편해 우수대학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남뉴스



광주대학교 제11기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 17 말레이시아 의료·미용 박람회 참

광주대학교가 12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5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미용박람회 참가한 광주대 GTEP사업단.

12년 연속 청년무역상 키우는 광주대

산자부 전문가 양성사업

광주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에 광주·전남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12년 연속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광주대(총장 김혁중)를 비롯해 향후 3년간(2018~2020년) GTEP사업단 지원 대상 대학 20곳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GTEP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이론과 현장 경험이 결합된 청년 무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광주대는 사업 첫해부터 12년 연속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광주대 GTEP 사업단은 지난 11년간 330여 명의 예비무역인력을 배출

했다. 지역 중소기업과 220여 차례 국내외 박람회 및 수출상담회에도 참가해 9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달성하는 등 지역 기업의 수출 첨병 역할을 해왔다.

광주대 GTEP 사업단은 내년부터 매년 30명의 학생을 선발해 외국어, 무역실무 등을 집중 교육하고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해외시장 마케팅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이규훈 광주대 사업단장은 “광주대의 연속 선정은 정부와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동남아시아는 물론 특히 인도시장에 중소기업의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우수학군단 선정

2017년 학생군사학교 평가

호남대학교 ‘제193 학생군사교육단’은 2017년 학생군사학교에서 전국 111개 대학학군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군단 평가에서 ‘2017년 종합 우수학군단’으로 선정됐다.

우수학군단은 전국 111개 학군단 중 2017년 한 해 동안 모든 학군단의 모범이 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군단을 선정하는 제도로 중령급 학군단에서 12개 학군단이 선정됐다.

호남대 학군단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최정에 초급장교 양성을 목표로 후보생들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왔으며, 우수 인재 확보와 교육훈련, 학군단 운영, 부대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종하 학군단장(중령)은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학군단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 그리고 후보생들이 학과 공부에 열중함과 동시에 교내 군사학교육 및 동하게 임영훈련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이뤄낸 성과”라며 “우수한 후보생 양성 과 참된 인성을 갖춘 초급 장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대 학군단은 1986년 26기를 시작으로 2017년(55기)까지 총 670여명을 임관시켰으며, 2017년에는 58기로 최초 여성 ROTC 2명이 선발됐고, 학군단은 이번 동계방학을 맞아 동계입영훈련 준비에 여념이 없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광주여대, 목포가톨릭대, 초당대 등 4개 대학은 최근 동신대에서 교수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 캡스톤디자인 성과발표회를 열었다.

동반성장 취지 담은 ‘캡스톤 디자인’ 발표회

동신대·광주여대·목포가톨릭대·초당대 연합 전시

동신대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4개 대학 연합 캡스톤디자인 성과발표회가 최근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로비와 동강홀에서 개최됐다. 캡스톤 디자인은 주어진 전공 과제를 기획, 설계, 제작하는 ‘종합설계’를 말하며, 최근 졸업논문 대신 캡스톤 디자인을 요구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동신대, 광주여대, 목포가톨릭대, 초당대 등 4개 대학은 최근 교수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발표회를 갖고 그동안 각 대학별로 추진해왔던 캡스톤 디자

인 우수 사례를 전시하며 산학협력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LINC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LINC+사업까지 연속 수행하고 있는 동신대학교가 그동안 쌓아온 산학협력 성과를 지역 사회에 확산하고, 각 대학들의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해 동반성장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4개 대학은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학 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모아 이날 성과발표회를 갖게 된 것이다.

도서관 로비에 마련된 전시회에는 동신대학교 8개 학과 9개 작품, 광주여대 2개 학과 7개 작품, 목포가톨릭대학교 1개 학과 2개 작품, 초당대학교 3개 학과 5개 작품, 동신대 제약공학과-광주여대 미용과 학과 연합 작품 1개 등 25개 우수 작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이우근 이우근HR연구소장이 ‘2018 취업시장 빅 트렌드 전망과 블라인드 채용시장 분석’이라는 주제의 초청강연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서울서 입주기업 투자 설명회

동강대학교창업보육(BI)센터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해 자금 확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는 ‘CEO의 꿈’을 맡겨주며 성공창업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동강대(총장 이민숙) BI센터는 최근 서울 Studio Garden에서 입주기업(주)에코비, 현대에프엔비(주), 디아이, 퓨어밸리 등 4곳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입주기업 투자 IR 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강대 BI센터가 입주기업의 투자유치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과 멘토링,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실제 투자자들 앞에서 홍보활동을 벌이며 투자유치까지 연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동강대 BI센터는 지난해 6월 산학협력관에 한국엔젤투자협회, 투자운용사인 (주)노스마운틴, (주)씨드림과 손을 잡고 호남 최초로 투자정보실을 개소했다. 또 동강대 BI센터는 대학생들의 성공

창업 꿈을 적극 지원하며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아이템을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했다.

지난 19일 산학협력관 교육실에서 ‘2017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지원 사업’ 창업아이템 성과 경진대회를 열었다. 동강대 BI센터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청과 창원진흥원이 주최하는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지원 사업’을 광주·전남·북·제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수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2개 학과 창업동아리 가운데 을 사업에 참여한 뷰티미용과, 호텔관광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응급구조과, 전기전자과 등 6개 팀을 선발해 아이템 개발비와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적극 지원했다.

이날 뷰티미용과 ‘뷰티판도라’팀이 발표한 작두공을 이용한 두피 클렌저 아이템이 대상을 받았다. ‘뷰티판도라’팀은 이 자리에서 시제품을 공개해 성분과 효능 등을 소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평택시 토지분양 (오픈)

삼성전자 – 120만평 LG전자 – 110만평
(미군기지 이전) (평택 항)

■ 총 7필지
1필지(200평) x 평당 130만
■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 완료

■ 투자 최적합 – 미래 값어치 평당 30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

- ①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1,413평) 매가 7억
- ②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 ③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 ④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 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010-6670-9800 010-7384-7800

영광주택 매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직거래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교육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공동 사무실 쓰실분

- 1. 사무직 정직원 내근하실분
- 2. 자유 출퇴근 하실분
- 3. 공동사무실 쓰실분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010-6670-9800

010-6670-9800

010-7384-7800